

### 3. 민족 · 민중 · 교회

安 炳 茂

#### I

민족 · 민중 · 교회라는 오늘의 제목은 광범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나는 이같은 제목 아래 최근의 우리 민족사에서 그리스도교회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비록 단면적이거나 史的으로 반성하고 당면한 과제를 제시해 보겠다.

우리역사에서 민족은 있어도 민중은 없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정말 실제하는 것은 민중이고 민족이란 대외관계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개념인데 언제나 내세운 것은 민족이었고 민족을 형성한 민중은 계속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 밑에 수탈상태에 방치되어 왔다.

우리 역사는 계속 외세의 침략과 위협을 받아왔기에 민족의식이 강했으며 민중은 나라사랑을 지상의 과제로 알았기에 민족의 운명을 내세우는 정부에 무조건 충성을 보여 왔으나 민중은 정부로부터 가장 무대접받는 역사가 계속됐다. 민중이 민족을 형성하고 그것을 지킬 大權을 정부에 맡겼는데 바로 이 민족이 개념화되어 민중을 흡수 착취하는데 이용되는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됐다는 말이다.

이것은 결국 민족도 없고 민중도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정부만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중국대륙의 세력들과의 굴욕적 협상이나 특히 한일합병 등은 집권자 몇 사람의 손에서 처리됐을 뿐 사실상 민족도 민중도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의 대권을 가진 정부에 복종했으나 착취와 혹사 외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민중의 분노가 터진 사건이 근세사의 흥 경태 사건이나 동학혁명 사건 등이다. 저들은 모두 민족의 이름으로 학대받는 민중—특히 농민—봉기로서 민중에 의한 자발적인 혁명의 불길이었다.

그 중 동학봉기를 보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이 민족을 위기에서 살리겠다는 민족애에 바탕을 두었으며, 둘째 민중의 빼앗긴 권리를 도로 찾겠다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엑셀트는 민중을 구하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除暴救民, 즉 폭정을 제거하고 민중을 구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중의 애족운동은 집권자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됐을 뿐 아니라, 외국군대를 동원해서 진멸했고 저들을 亂民으로 처리해 버렸다.

오늘은 3·1절이다. 이것은 사리사욕으로 민족을 팔아먹는 정부는 없어진 마당에 순수 민중만으로 점령세력에 항거한 운동만이 아니라, 동학혁명의 불길을 올렸던 민중의 힘이 이념화된 사건이었다.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중정신의 고차원적인 성숙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독립선언서는 우선 자주민의 선언이라고 했고, 이 천만 민중의 소리라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의 이념과 투철한 역사의식이 승화된 내용이다. 인류평등, 恒久如一한 자유발전을 전제로 하여 동양의 항구적 평화와 세계개조의 뜻을 천명한 것이 평화이념이고 구세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가 몰락될 것을 내다 보면서, “아 신천지가 눈 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는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는 왔도다. 세봄의 세계가 와서 만물의 回蘇를 재촉하는도다. 물이 열고 찬눈나리는 숨결로 땅 속에 움크린 때는 지난 때의 勢라면 더운 바람과 따듯한 햇빛의 氣脈을 떨치는 때가 이 때의 勢”라고 구가한 것은 비록 억눌려 이름없이 지내면서도 우리민중이 얼마나 성숙했든가를 천

하에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민중은 잔인한 침략권력에 참혹하게 짓밟혔다.

36년간의 암흑시대에서 해방된 민중은 조국광복의 화열에 도취했다. 잃었던 나라를 찾은 기쁨은 민족독립에 모든 정열을 쏟았다. 민중은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첫 정부는 권력을 잡자 변질되어 그 안중에 민족은 있어도 정권을 안겨준 민중은 없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민족도 없고 정권만이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을 기만하고 민중을 누르고 민중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민중의 분노는 마침내 터져서 4·19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은 동학혁명, 3·1운동의 민중의 일이 다시 소생한 사건이다.

민중의 봉기와 더불어 새롭게 민중에 의해 세워진 민주당 정권은 민중의 소리를 집약할 겨를도 없이 민중과 상반없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 쓰러졌다. 이렇게 강권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권이 내세운 것은 민족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나 조국의 근대화 등을 구호로 내세운 것이 그것이다. 민족적이라면 민족이 전제되며 민주주의라면 민중이 전제된다. 그러나 민중은 안중에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민족인데 그 민족도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일본 자본과 노력을 강력으로 끌어들이며 퇴색해 버렸다. 그 때 3·1운동, 4·19혁명의 민중의 혼은 그것은 민족을 팔아 먹는 것이라고 항거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강권으로 이 민중의 소리를 짓눌러 버렸다. 그후 십여 년 민중은 길든 점승처럼 침묵만 계속했다. 학생들만이 민중의 소리를 간헐적으로 대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홀로 고부하다가 곧봉에 흠여졌다 또 일어서곤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위수령, 비상사태 선언 등 점점 민중의 소리를 조이다 마침내 이른바 유신체제라는 명실공히 민중의 소리를 배제하는 체제를 만들어 냈다.

저렇이도 더디면 꿈적한다. 하물며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을 일으킨 이 민중이 그대로 죽은 채만 할 수 있는가?

학생들만이 마치 조직없는 민중의 대변인 것처럼 쳐다만 보던 민중의 일부가 민중의 입이 되기로 결심하고 일어섰다. 그게 김 동길이고 김 찬국이요, 저 학순이요, 박 형규의 소리였다. 그런데 저들이



200여명들과 함께 투옥되어 반국가적 죄인으로 15년형을 받게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저들은 민중의 진정한 소리를 내뱉은 입이 된 이상으로 한 일이 없다. 저들은 그저 젊은 학생들의 소리에 화합했으며 치사한 기성세대의 비굴한 오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민중의 입이 되려고 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정부는 저들을 죄인으로 투옥했다.

그러나 저들을 가두면 무얼하나? 불만을 품은 민중의 분노가 그대로 있는데 입만 틀어 막으면 뭘하나? 민중의 눈이 있고 손과 발이 있는데! 아니 저들마저 잠잠하면 저 거리의 물이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정부는 저들을 표창해야지. 까닭은 저들이 민중의 분노가 물이 되지 않도록 민중의 분노의 해독역할을 한, 정부를 위한 인사들이었으니 말이다.

저들은 썩고 부패한 정부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개혁운동을 일으킨 최 수운에게도 미치지 못했으며 최 해월이나 전 봉준처럼 폭동을 일으켜 관청을 불지르고 세금을 거부한 일도 없었다. 저들은 단순히 민중의 소리를 전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저들을 투옥한 것은 이 정부가 결국 민중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체질이 됐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동아일보 사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동아가 법에 걸리면 재판에 걸면 된다. 그런데 음성적 교살시도는 결국 민중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다 투옥된 것은 민중운동의 큰 계기가 됐다. 그런데 그것은 최 해월이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사면을 청원하기 위해 한양에 몰려와 대궐 앞에서 탄원하던 박 광호 일파의 경우와 비슷했다. 그런데 이 민중의 평화로운 탄원이 마이동풍이 되므로 민권운동으로 번진 것이다. 그것은 해월의 사면을 들어주지 않아 동학혁명을 일으킨 과정과 같다. 그러나 아직도 이 민중은 제 2 동학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들의 석방을 탄원하는 민중의 소리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가! 그런데 비록 일부인사들이 석방됐는데도 아직 사면은 안한다고 하니 민중은 계속 대궐 앞에 보복하여 탄원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죄가 되어 체포하여 구속한다면 어떤 학생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영광입니다” 했던 것처럼 초탈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민중의 편에 섰다가 구속되는 영광을 억지로라도 감수하는 후계자는 많을 것이다.

## II

그런데 이런 마당에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우리가 출옥을 기념하는 대상들도 기독교 교수협의회 회원들이다.

저들은 왜 민중의 편에 섰는가?

우선 현재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는 과거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사람들은 한국의 교회가 사회참여하는 것을 제 본분을 떠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민족, 이 민중에 대한 잘못을 참회하는 이상의 일을 하지 못했다.

초창기의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민중의 자각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3·1운동에 그리스도 교회가 앞장서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구체적 표현이었으며 그 때의 그리스도 교회의 운동을 오늘날처럼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났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은 없다.

그런데 해방 후의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끝은 어떤가? 그 안중에 민족은 있어도 민중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승만 정권이 민중을 짓밟은 것을 볼 눈이 없고 단지 그가 내세운 민족이라는 구호에 현혹되어 그 정권에 무조건 아부하고 민족이라는 구호 밑에 깔린 민중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려고 하지 않았다.

4·19 당시의 그리스도 교회의 자세는 생각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부정부패의 타류에 민중은 눌린 채 냉가슴을 앓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인권>이나 <정의>라는 용어도 모를 정도였다.

마침내 어린 학생들이 봉기하여 혈전을 펼 때에도 그리스도 교회는 꿀먹은 벼어리처럼 말이 없었고 비접하기로 이른바 지식인 교수들이 마지못해 학생들 운동에 가담했을 때에도 한국의 교회는 죽은 듯 잠잠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행위를 반영하는 비접

이었다.

예수는 권력층이나 부유층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모범적 시민이나 지식층을 위하지도 않았다. 그는 민중의 친구로 민중의 편에 섰다가 그 민중을 위해 쓰러졌다.

성서에는 민중을 표시하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용어가 있다. 하나는 라오스(*laos*)이며 또 하나는 오클로스(*oxlos*)라는 회랍어다.

라오스는 오늘날의 국민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으로서 어떤 집단권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민중의 칭호인데 반해서 오클로스는 권의적인 대중이다. 저들은 한 집단 안에 있으면서도 받은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무리들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가장 처음에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싸고 돌며 또 예수를 무조건 따르며 그에게 희망을 준 사람들을 라오스라고 하지 않고 오클로스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오클로스 저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며 기성사회에서 적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이며 잃어버린 양이며, 백안시당한 당자며 초청받지 않았던 동네 큰 거리와 골목에서 배회하는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맹인들>, <철쭉발이>며, 해가 저도 일자리 없어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이며,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이며, 배고프며 헐벗었으며 슬퍼 통곡하며 박해를 받은 자들이다.

사회계층적으로 보면 제 4 계급이다. 이에 반해서 집권자와 이론가 엘리트들은 예수를 적대하여 마침내 그를 고소하여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다.

예수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인간적으로 불 배지혜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권력있는 사람이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전 1:26).

초창기의 한국 그리스도 교회에도 이러한 오클로스들이 모였고 이른바 베비우스 선교정책도 이러한 오클로스를 중심대상으로 정했다.

그런데 언제나 모르개 한국교회는 밥술이나 먹고 살아 입을 옷이나 있는 계층 이상이 모이는 곳이 됐고 예수의 친구인 오클로스들은 그 문전에 오기도 부끄러워 할 체질로 바뀌었다.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 교회가 무력하게 된 원인이며, 민중과 유리될 뿐 아니라 예수에게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면 교회가 최근에 자던 잠에서 깨어나 잊었던 오클로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결과 눌린 자들에 관심하고 저들의 입과 손발이 되기로 서서히 자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정부 운동도, 정치운동도 아니고 단지 잃었던 예수의 정신으로 되돌아와 자기 동일성을 찾으려는 단면의 노출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있다. 그것은 한국 그리스도 교회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그러나 본래의 모습으로 급진화를 강요하는 명령이다. 새로운 국면을 의식한 것은 참된 자유가 없으면 선교의 자유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서 시작한다. 그것은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나 행위가 범죄로 몰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된 때서 비롯한다. 거기서 발견한 것은 정치 경제적 구조악이라는 것이다.

이 마당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방향은 뚜렷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 III

나는 여기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 나침의 몇 가지 기본자세의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1. 교회는 정당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권이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교회 자체의 직접적인 관심사일 수 없다. 교회의 관심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상 그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결해야 한다. 그것도 그런 의미의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을 뜻한다. 이것은 민중에 의한, 민중의, 민중을 위한 길이다.

2. 그리스도교는 본래적인, 새로운 가치관 위에서 새로운 윤리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윤리의 거점은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감상을 지양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그것은 가난하고 눌린 오클로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에 뺨친

그리스도교의 본래의 것을 도로 찾으므로 공산주의자들을 무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3. 오를토스를 위한 사랑의 운동은 조직화되어야 하고 저들이 체념에서 희망으로 옮겨질 만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청사진은 그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여야 한다. 조직화는 연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서 네가 당하는 일이 곧 내가 당하는 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까닭은 저들을 억누르는 악은 구조화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노의 단순한 폭발이나 파괴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양하는 길이며 정치, 경제의 쟁점을 전제하는 길이다.

4. 그리스도 교회의 어떠한 운동도 폭력을 저항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폭력을 저항하는 운동에 폭력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폭력의 악순환에서 이 역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최후의 역사적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최선의 길을 택하고 판정은 하나님께 기대는 신앙을 최후거점으로 해서, 그러므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느니 예수가 십자가에 다소곳이 처형됐듯이, 3·1 운동 선언을 끝내고 투옥될 것을 기다려 손을 내밀 33인들처럼, 김 찬국, 김 동길씨 투옥됐듯이 수난의 길을 선택하며 의의 증인이 된다.

그게 바로 무릎을 꿇고 사는 대신 선 채로 끌려가겠다는 민중의 소리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지시다.

■ 1975년 4월 ■